



독일편(上)

1. 재독과학협의 창립배경

재독한국인과학기술자는 1950년대 소수의 유학생으로 시작하여 60년대에 이르러 그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50년대부터 유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던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학생회를 조직하여 상호친목 및 정보교환을 도모하고 있었으며 각 지방학생회간의 유대에도 그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196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학업을 마친 유학생들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따라서 일부 귀국도 하였지만 독일 현지에서 학계 및 산업체에 종사하며 계속 체류하게 되는 인원이 상당수에 달하게 되었다. 한편 1982년부터 시작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본 궤도에 들어서면서 이 계획의 실천에 뒷받침이 될만한 과학기술자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재독과학기술자들 사이에서도 독일에서 습득한 전문과학기술 능력의 고국내 효율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정보교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당시 독일에 거주하고 있던 30대 과학기술자를 중심으로 고국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재독과학협의 창립이 추진되게 되었다. 1971년 5

73년 프랑크푸르트서 38명이 창립

在獨한국과학기술자협회

회장 황영수씨, 20돌기념 자축행사



◇회장 황영수씨

월 설립준비위원회의 발기를 기점으로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1973년 5월6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 근교의 크론베르그(Kronberg)에 있는 프릿츠 에멜 하우스(Fritz-Emmel-Haus)에서 독일 전역 38명의 재독과학기술자가 참석한 가운데 외빈을 모시고 창립총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올해로 성년 20주년을 맞이한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재독과학)는 오늘날에 이르러 귀국한 회원을 제외하고도 7백여명의 회원을 거느리는 커다란 단체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동안 크고 작은 여러 활동을 수행하면서 전 회원의 공익을 대변하고 있다. 현재 재독과학은 독일 법원에 등록된 공익법인체이다.

2. 기구 및 조직

재독과학은 협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집행기구로서 회장단, 지역회, 전문분과회,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중요사안의 결정을 담당하는 의결기구로서 총회, 평의원회를 두고 그의 감사를 두고 있다. 각 기구의 세부조직 및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표1 참조)

회장단: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업무담당 부회장(간사장), 그리고 총무, 재무, 편집 등의 세부업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그 구성요원으로 하고 있으며, 평의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주요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게 된다. 본회를 대표하게 되는 회장은 총회에서 2년의 임기로 선출되며, 동일 지역회에서의 연임은 관례상 피하고 있다. 회장단의 각 구성요원은 임원의 자격을 가지며 평의원회의 일원이 된다.

지역회: 회원의 분포 및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10개의 지역회를 구성하고 있다. 지역회는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들 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지역회행사(세미나 및 체육대회)를 실시하며, 재독과학과 각 회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회에서 선출된 지역대표는 협회의 임원의 자격을 가지며 의결기관인 평의원회의 일원이 된다.

전문분과회: 전문분과회는 유사 전공 분야의 회원간 연대를 위한 기구로 운영되며, 현재 전기·전자·전산, 기계, 재료, 건설, 물리·화학 그리고 생명과학 등 6개의 전문분과회로 구분, 운영되어지고 있다. 전문분과회는 주로 학계 또는 산업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로 및 장년회원을 주축으로 연 2회 모임을 통하여 최신 학술정보의 교환은 물론 산업현장에서 취급되어지는 과제 및 문제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선·후배간 대화의 장으로서 후배회원들의 진로결정이나 연구방향 수립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각 전문분과회의 분과장은 임원의 자격을 가지며 평의원회의 일원이 된다. 유사 전공분야 회원의 밀집도에 따라 지리적 장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지역전문분과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시 접촉을 통한 정보교환 및

공동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협회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구성되며 해당업무 종료시 자동적으로 해산된다. 현재 재독과협에서는 기금관리위원회, 회칙개정위원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등 3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총회: 총회는 재독과협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연 1회, 가을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통 그 운영의 편의를 위해 정기학술대회와 함께 개최된다. 총회시 독일 전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전회원이 2박3일의 일정으로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며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정보교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총회에서는 회장선거, 회칙개정, 재정 및 감사결과 보고, 기타 평의원회에서 상정

되는 중요 사안이 의결된다.

평의원회: 평의원회는 회장단, 지역대표 평의원(지역회장), 전문분과장, 특별위원장, 감사 및 특별 선임된 2인의 역대회장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의 발의 또는 지역대표 평의원 4인이상의 공동발의에 의해 소집된다. 평의원회에서는 총회 상정안건의 준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등 주요사안이 취급되어지며, 협회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실질적 의결기구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다.

감사: 재독과협은 평의원회에서 선출되는 2인의 감사를 둔다.

3. 주요사업 및 활동내용

재독과협이 표방하고 있는 근본 활동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회원 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모국의 과학기술 및 산업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수행하는 것에 두고 있다. 재독과협의 세부적인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은 사업활동으로 대별될 수 있다.

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재독과협은 총회, 지역회 및 전문분과회 활동을 통한 회원간의 친목 및 유대강화를 주요사업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어느 단체나 기본목표로 하고 있지만 특히 외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회원들이 대부분인 재독과협의 성격상, 서구적인 생활환경 속에서도 한민족의 끈끈한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친목도모의 자리가 단순한 소비적인 자리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학술대회, 세미나 및 전문분과 모임 등을 병행 지원하면서 친목도모 및 유대강화와 함께 참여회원의 학문 및 지식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